

창조주께서
말씀하시다





"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." (히 1:1-2)

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?
하나님의 말씀을 (대면해서)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?
물론 “아니요”라고 대답할 것입니다.

우리는 간접적으로, 즉 기도, 성경, 예언의 선물을 받은
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.

우리는 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을까요? 그저
옛날부터 늘 그래왔을까요? 아니면 언젠가는
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게 될까요?



1

처음(창조되었을 때)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
대화했습니까?

2

어떻게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
되었습니까?

3

하나님께서서는 어떻게 사람과 다시
소통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?

4

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
없을까요?

5

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
있을까요?

처음(창조되었을 때)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?

“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” (창 2:16)



처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(사 45:18).

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(창 2:4-7).

같은 날,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(창 2:18, 21-22).



이제 사람이 완성되었으며,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(창 1:27).

처음(창조되었을 때)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?

“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” (창 2:16)



하나님은 아담과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.

🌿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고 (창 2:15).

🌿 아담이 넘지 말아야 선을 말씀하셨습니다(창 2:16-17).

🌿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고 (창. 2:19).

🌿 아담을 하와에게 소개하시고 둘을 결혼시키셔서 부부로 맺어 주셨습니다(창 2:22-24).

처음(창조되었을 때)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?

“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'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' ” (창 2:16)

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(창 1:28-29).

하나님은 그들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들이 서로 소통할 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(예를 들어 천사들)과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.

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지정하셔서 하루 종일 함께 사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.

그때부터 하나님은 날이 서늘해 질 즈음에 찾아오셔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(창 3:8).



어떻게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?

“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”(창 3:10)



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. 그들은 모든 것들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그들에게 금지하시고 구별해 놓으셨습니다(창 2:16-17).

바로 그 나무에서, 뱀으로 위장하고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는 척하던 유혹자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. 그리고 하와는 이를 아담에게 전했습니다. 즉,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(“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”),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(“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”), 하나님께서 진실을 그들에게 숨기고 계신다는(“하나님은 아신다”) 것이었습니다(창 3:1-5).

금지된 나무의 열매가 가진 신비로움에 매료된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고, 아담을 유혹하여 그 또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(창 3:6).

그 순간, 그들의 몸을 감싸던 영광의 옷은 사라졌고,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으며, 자신들의 잘못을 감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(창 3:7).

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깊은 죄책감에서 그들은 더 나쁜 선택, 즉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(창 3:8).



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다시 소통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?

“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. ‘아담아, 네가 어디 있느냐?’ ” (창 3: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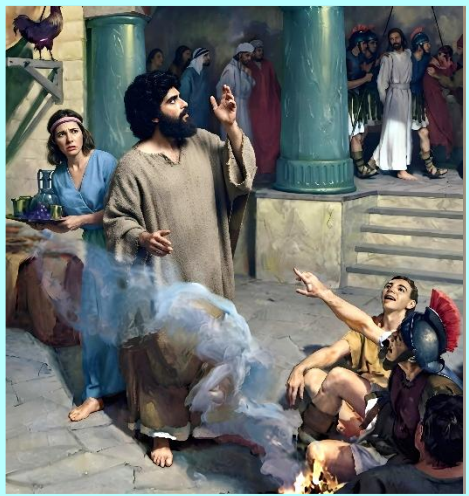
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처음으로,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나서야 겨우 응답했습니다(창 3:8-9).

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,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하려 하셨습니다. 그분은 죄인을 피하지 않으셨고, 오히려 그들로 자기 죄를 직면하게 하시며 회개하도록 이끄셨습니다(창 3:10-11).



수 세기가 지난 후,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죄인, 곧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시며 회개를 이끌어내셨습니다(눅 22:61-62).

자신의 죄를 인정한 베드로와 달리,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다른 이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(창 3:12-13).



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. 우리는 죄에 집착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. 비록 우리가 죄에 ‘달라붙어’ 있을지라도,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. “내게로 나아오라”(사 55:3).

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을까요?

“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” (창 3:24)



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부부에게 자신들의 죄가 초래한 결과를 보여주셨는데, 그중 하나는 에덴에서 쫓겨난 후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(창 3:16-24).

죄의 결과:

하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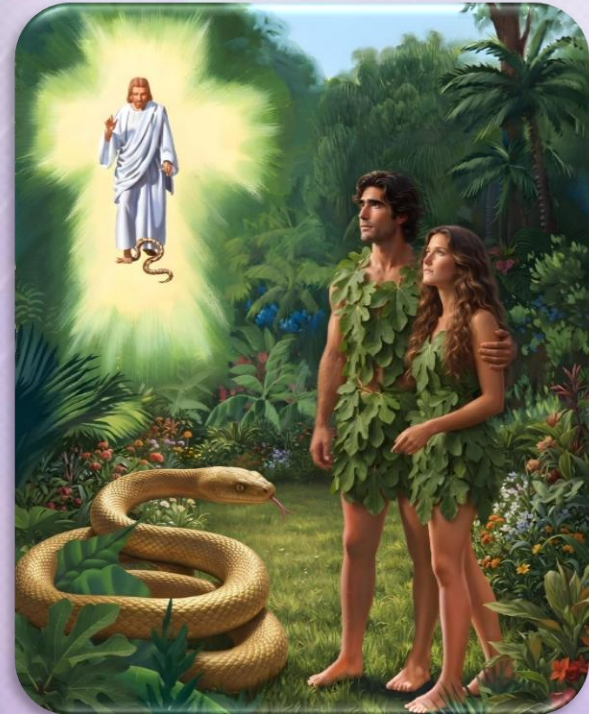
- 출산의 고통
- 아담과 동등한 위치를 상실함

아담

- 지치도록 일하고
- 음식을 위해 일함

모두

- 죽음
-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됨



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초래한 운명을 알려 주시기전에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. 곧 하와의 후손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(창 3:15).

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려 주셨습니다. 즉,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며,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(사 9:6; 53:6, 10-11).

죄가 생기자마자 구원하실 분이 오실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.



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?



“사람의 아들이야,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.
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라.” (겔 33:7)



오늘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, 하나님께서는 두 권의 ‘참고서’를 기록하셨습니다. 바로 창조물들과 성경입니다(롬 1:20; 딤후 3:15).

창조 받은 자연세계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기만, 그 세계는 죄로 깊이 오염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을 받은 선지자들의 명확하고 직접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.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(히 1:1-2).



그 계시에서 내가 누구인지, 어디서 왔는지,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발견합니다. 그 계시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.

더욱이, 우리는 기도로(시 5:2); 천사들의 도움으로(행 8:26); 선지자들로(요엘 2:28); 특별히 성령님의 도움으로(요 14:26)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.



“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업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.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했고 이 계획은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. 사탄이 아담을 범죄하게 했으며, 그가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죄 없던 시절처럼 아담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.

사람이 타락한 후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선생님이 되셨습니다. 그분께서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시며, 사람들을 즉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셨습니다.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이 주어졌으며, 이 계획에는 그들의 모든 후손도 포함되었습니다.

하나님의 아들의 속죄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.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의 존엄성을 지키려 하셨습니다.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무섭게 갈라 놓았습니다. 죄 짓기전의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게 되었습니다.”

부록:엘렌 화잇의 생애



유니스와 로버트 하몬 부부의 여덟 자녀 중 막내였던 쌍둥이 자매 엘렌과 엘리자베스는 1827년 11월 26일 미국 메인주 골햄에서 태어났습니다.

얼마 지나지 않아 하몬 부부는 모자 제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메인주의 주요 도시인 포틀랜드로 이주했습니다.

엘렌이 아홉 살 때, 같은 반 친구가 던진 돌에 맞아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. 이 사고로 그녀는 지속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.



하몬 가족은 윌리엄 밀러의 (재림)기별을 받아들였고, 엘렌은 1842년에 감리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엘렌은 삶의 동기나 의미를 찾지 못했고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. 그러던 중 레비 스톡먼 목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 때로부터 엘렌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으며, 평생토록 주님을 섬겼습니다.

